

성가톨릭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소식지

• 발행인 : 박명옥 • 편집인: 호스피스완화의료팀 • 전남 순천시 순광로 221 • Tel: 061)907-7530/7560 • Fax: 061)907-7562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겨울을 보다가

오늘 아침 겨울을 보다가
문득 나는 알았습니다.
얼굴만 보지 말고
마음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날마다 얼굴을 씻고
화장을 하고 때로는
성형까지 하면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겨울을 보다가 나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얼굴을 씻는 것보다
마음을 씻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 시인 김용해 -

➡ 25년 07월 02일 자원봉사자 연합교육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심화교육으로 교육주제는 「인문학강좌-무엇을 남기겠습니까」「웰다잉강좌-생전의 유품정리」로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유품정리사 김석중선생님의 강의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삶의 의미를 풀어내며 울림을 주는 시간이었다.



➡ 25년 06월 09일 통증캠페인



말기암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하고 힘든 신체적 증상이 통증이다. 통증만 잘 관리해도 말기암 환자 삶의 질은 눈에 보이게 향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편견 때문에 통증 조절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6월 9일 본관 로비, 진료실복도, 입원실에 들어가 통증캠페인을 실시하였다. O,X 퀴즈를 풀어 봄으로써 암성 통증에 대한 편견과 진실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홍보 물품을 챙겨 가시기도 했다. 더불어 호스피스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질문과 퀴즈를 통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캠페인이었다.



25년 08월27일~28일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교육



올해도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은 호스피스의 올바른 인식의 정립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하였다. 교육생들은 순천 지역은 물론이고 광주, 구례, 여수, 고흥, 벌교, 광양, 장성, 나주등 여러 곳곳에서 홍보지를 통해 친구와 함께, 부부가, 홀로 신청했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며 56명이 참석했다.

젊은층들은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친구따라 함께 한 보건관련과 전공인 교육생도 있었고 남편이 신청하고 아내가 신청해서 참석한 부부도 2쌍이었다.

호스피스 교육에 진심인 20대 초반의 학생은 신청했다가 다른 일정이 생겨서 취소했는데 일정이 변경되어 참석할 수 있게 됐다고 다시 신청한 경우도 있어서 준비하는 이들에게 흐뭇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의 울림으로 온 교육생도 있었고 다른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으로 신청하게 됐다는 각자마다 참석하고자 하는 동기가 다양했다.

다양한 참석 동기와 전체적인 교육 흐름은 긍정적이며 호응도가 높고 흡족해하는 분위기였다. 이론 교육을 마치고 둘째 날 오후에는 장소를 이동해서 본원 장례식장에서 유서 쓰기와 관체험을 했다. 유서 작성 시 울면서 쓰는 진지함과 관 속에 들어가 여러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가 솟구치는 눈물을 주체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분도 있었다.

교육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으로 의미 있는 생활을 하겠다는 표현, 내가 노력해야 할 것에 대한 결심을, 힘들 때는 마음에 새긴 교육 내용을 꺼내 다시 마음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기로 하며 우리 자신들을 위해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마무리할 수 있었다.



➡ 25년 9월 29일 **삶의 질을 높이는
발 마사지 교육**



발 마사지 교육은 다년간 교육과 실제적인 발 마사지 봉사를 하신 김은수 교수님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본 교육은 봉사자 개인의 역량 강화, 마사지를 받는 이의 신체·정서적 건강 증진이라는 다중적 효과와 교육 참여를 통한 자기 성장과 성취감을 경험하며 봉사 지속성 제고에 기여하며 봉사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경험하여 긍정적인 봉사자 태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25년 10월 02일
한가위 맞이 송편 빚기 이벤트

추석맞이 송편 빚기

명절 준비를 위한 송편 빚기 이벤트를 시행했다.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쁘게 송편을 빚고 나눔의 시간이 되었다.

예쁘게 빚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가지고 시행하신분, 초대 자체의 감사함으로 빚으시기도 하며 전체적으로 예쁜 모양으로 냐왔다.

사서 먹는 것 보다 쫄깃쫄깃하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이벤트가 성공적인 느낌이 들었다.

송편과 다과 신선한 대하까지 환자와 가족들에게 나누면서 풍성함을 느꼈다.



➡ 25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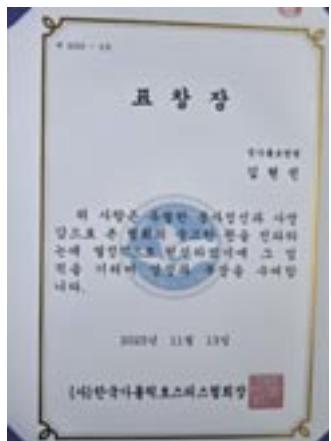
10월 22일 광주광역시청 야외 광장에서 광주 전남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7개 기관 실무자들이 오가는 시민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캠페인으로 어린이집 6~7세 아동부터 청장년,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호스피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캠페인으로 호스피스를 알고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OX퀴즈, 완화의료 상담 데스크 운영, 리플릿 배부, 즉석 케리커쳐 그려주기, 즉석 사진 인생 네컷, 마지막으로 준비한 커피차에서 수제 쿠키와 커피로 마무리를 한 참여자들이 기쁜 표정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바로 알고 선물도 받고 서로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하루였다.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 우수자원봉사자상 수여



호스피스 병동에서 1000시간 이상 성실하게 봉사한 봉사자로 인정을 받아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우수봉사상을 김현진 유스티나 자매님이 수여했다.

주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먼저 가신 영혼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완화의료 도우미제도를 2016년 11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1일 본인부담 간병비 5천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방법

말기진단(담당의사)



호스피스 진료의뢰/방문



호스피스팀과 상담



이용동의서 작성



호스피스 이용
입원형 호스피스(말기암인경우)

문의: 입원형 호스피스 061) 907-7560, 7530

병동 미사 및 사별가족 모임 안내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매달 두 번째 목요일 오후 2시에 입원환우와 가족, 세상을 떠난 환우와 사별가족을 위한 미사를 별관 5층 호스피스 병동 기도실에서 봉헌합니다. 미사 후 사별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실의 슬픔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대세자 2025년

6월 신요셉, 송마리아 10월 박요한, 양베드로

7월 주베드로, 형바오로 11월 장요한, 양스텔라, 허리디아

8월 문베드로, 유사도요한

9월 김안나, 오마리아

후원회 소식

후원자

강금자, 김길남, 김경화, 김귀순, 김명자, 김민세, 김소월, 김은미, 김은희, 김을순, 김인아, 김철영, 김현자, 김혜인, 노순애, 박근발, 박성지, 박성호, 박순자, 박정재, 박제형, 서영희, 손경표, 손경숙, 송소심, 송현자, 서경숙, 서순애, 선영민, 신문자, 신효숙, 오미현, 오정현, 이구현, 이복덕, 이영숙, 이혜숙, 임정희, 장선화, 정상심, 정승희, 정은희, 정정란, 정지영, 조소영, 조영순, 조익순, 주선순, 주은아, 주은주, 황인용, 한덕순 외 4명, 황현숙, 허경자

단체 및 기업후원

드림치과, 저전동성당(대건회, 빈첸시오회),
송도종합건설(주), JA건설

물품 후원

김영순, 배옥란, 박선심, 서영희, 서혜정, 이혜숙, 임정희, 장삼순, 한덕순

호스피스완화의료 팀원들은 도움을 주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 중에 기억하며
매월둘째 목요일에 감사 미사를 봉헌 합니다

후원회 안내

호스피스완화의료 후원에 함께 하실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은행계좌: 700-107-426533 광주은행

예금주: (재)천주교끼리따스수녀회(완화의료)